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태와 과제

민 무 속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I. 여성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우리나라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여성 자신의 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전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85년 여자 34.1%, 남자 38.3%에서 2000년 현재 65.4%, 70.4%로 각각 높아져 여자는 1.9배, 남자는 1.8배 증가하였다. 이제 여성 인력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1. 여대생 인구의 증가

4년제 일반 대학에서 여학생은 1970년 22.3%에서 2001년 36.3%로 증가해 전체 학생의 36%를 넘어섰다. 여학생 수의 증가 속도는 점점 가속화돼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0.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980~1990년 동안에는 6%,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7.3% 포인트가 증가했다. 교육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사실상의 남학생 입학할당제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70.9%를 차지한다. 이외 산업대학과 방송대학 역시 상당히 큰 비율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높은 여성인력의 양성 결과는 UNDP 개발 보고서의 국가간 인간개

발지수비교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중 27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여대생 인구의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밑받침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 능력의 증가, 그리고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하여 예전처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남녀 구성원 모두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가족구조적인 요인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요인이야 어떠하든지 여성 전문인력의 가장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여성의 높은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국가인적 자원의 배가를 가져온 것이다.

2. 여성 박사 학위자의 급속한 성장

우리나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질적 수준의 고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가장 고급인력 배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표 1>을 보면 1970년~2001년 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남자 80,146명, 여자 14,486명으로 여성 박사 비율은 15.3%를 차지한

다. 1970년도에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 250명 중 남자 241명, 여성 9명, 여성 박사 비율 3.6%에서 2000년도에는 남자 6,110명, 여자 1,523명, 여성 박사 비율 20.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자가 25.4배, 여자가 169.2배 증가한 숫자이다.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는 1970년에 전체 172명 중 여자가 4명으로 여성 박사 비율이 2.3%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전체 1,667명 중 여자 173명으로 10.4%를 차지해 10%대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으며 2001년 6,485명 중 1,484명으로 22.9%를 나타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3%에서

10%대로 진입하는데 16년이 걸렸으나 20%대에 진입하는데는 5년이 걸려서 여박사 비율의 증가 속도가 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박사 중 여박사는 1970년 4명에서 2000년 1,288명으로 31년간 322배 증가하였으며 남자 박사는 동기간 동안 168명에서 5,290명으로 31.5배 증가하였다.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박사 비율은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약간씩 굴곡을 보이면서 10%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 14.2%, 2000년 22.3%로 증가하면서 20%를 넘어섰다. 2001년 7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외국 박사는 총 21,616명이며 그중 여자가 3,391명으로 15.7%, 남자가 18,225명으로

〈표 1〉 박사 학위 취득자 성별 증가 추이(1970~2001)

(단위: 명, %)

	전체			국내 박사			외국 박사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남성	여성	여성 비율
1970	241	9	3.6	168	4	2.3	73	5	6.4
1975	517	18	3.4	367	9	2.4	150	9	5.7
1980	681	75	9.9	490	47	8.8	191	28	12.8
1985	1,622	189	10.4	1,275	138	9.8	347	51	12.8
1986	1,963	229	10.4	1,494	173	10.4	469	56	10.7
1990	3,259	486	13.0	2,336	333	12.5	923	153	14.2
1995	5,003	984	16.4	3,724	699	15.8	1,279	285	18.2
2000	6,110	1,523	20.0	5,290	1,288	19.6	820	235	22.3
2001	5,220	1,548	22.9	5,001	1,484	22.9	219	64	22.6
누계	80,146	14,486		61,918	11,095		18,225	3,391	
배수	25.4배	169.2배		31.5배	322배		11.2배	47배	

자료: 1) 국내 박사 부분: 교육통계연보+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전과기원, 광주과기원 내부 자료

2) 국외 박사 부분: 학술진흥재단 신고 자료(2001. 7. 20일 기준)

* 주: 국내 박사는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을 합한 것임. 1970~1985년은 '이수자' 수이며 1986~2001년은 '취득자' 수입.

84.3%를 차지한다. 여자 외국 박사는 1970년 5명에서 2000년 235명으로 47배 증가하였으며 남자 외국 박사는 1970년 73명에서 2000년 820명으로 11.2배 증가하였다.

〈표 2〉를 통하여 남녀 박사 학위 취득자의 증가

속도를 분석해 보면 여자 박사의 수는 남자 박사에 비해 배출 총량이나 연도별 배출자 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소수이나 배출 증가 속도에 있어서는 남자 박사를 현저하게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여성 박사는 1970년대

39%대, 1980년대 21%대, 1990년대 전기 15.3%, 후기 9.2%를 나타내 동기간 동안의 남자 박사의 증가율(1970년대 19.1%~7.1%, 1980년대 19.2%~15.2%, 1990년대 9.1%~4.1%)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Ⅱ. 여성 전문인력의 편중된 양성과 저조한 활용의 문제

여대생 인구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은 결국 여성 전문인력군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양적인 팽창 속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

고 있다.

1. 계열별 편중 양성 구조

여대생들의 양성 구조를 보면 1990년에 인문계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2001년에는 사회계로 집중되는 차이를 보이지만 그밖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학계의 여학생 비율은 1985년 43.4%에서 1990년대에는 줄었다가 2001년에는 다시 40%를 겨우 회복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공학계 진출은 1985년 2.7%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01년에는 여전히 13.4%에 지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모든 계열 중에서도 가장 적은 비율이다. 대학원 과정의 여성 인적자원 양성 구조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표 2〉 박사 학위 취득자 5년 단위 누계 및 연평균 배출자 수 및 증가율 (단위: 명, %)

		전체		국내 박사		외국 박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0 ~ 1974	5년간 누계	1,440	93	969	48	471	45
	연평균 배출자 수	288	18.6	193.8	9.6	94.2	9.0
	연평균 증가율	19.1	39.2	21.5	63.6	18.0	25.1
1975 ~ 1979	5년간 누계	2,532	191	1,727	83	805	108
	연평균 배출자 수	506.4	38.2	345.4	16.6	161.0	21.6
	연평균 증가율	7.1	39.5	9.2	64.2	5.1	31.5
1980 ~ 1984	5년간 누계	4,960	474	3,662	309	1,298	165
	연평균 배출자 수	992	94.8	732.4	61.8	259.6	33.0
	연평균 증가율	19.2	21.3	21.4	26.1	12.8	15.0
1985 ~ 1989	5년간 누계	11,741	1,486	8,819	1,050	2,919	436
	연평균 배출자 수	2348.2	297.2	1763.8	210.0	583.8	87.2
	연평균 증가율	15.2	21.0	13.1	19.4	21.9	25.9
1990 ~ 1994	5년간 누계	20,945	3,318	15,220	2,312	5,725	1,006
	연평균 배출자 수	4189.0	663.6	3044.0	462.4	1145.0	201.2
	연평균 증가율	9.1	15.3	9.9	16.3	7.0	13.8
1995 ~ 1999	5년간 누계	27,198	5,853	21,230	4,521	5,968	1,332
	연평균 배출자 수	5439.6	1170.6	4246.0	904.2	1193.6	266.4
	연평균 증가율	4.1	9.2	7.3	13.1	-8.0	-3.6

*자료 출처 및 주는 〈표 1〉과 동일

〈표 3〉 계열별 여대생 비율 변화

(단위: 명, %)

		계	인문계	사회계	이학계	공학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학사	1985	26.8	42.6	14.2	43.4	2.7	62.0	32.8	56.8
	1990	23.7	35.3	10.1	25.0	5.2	25.5	66.2	38.0
	2001	36.2	56.5	36.6	40.9	13.4	48.2	55.5	62.0
석사	1985	19.1	26.9	6.2	34.3	2.0	22.8	65.7	30.2
	1990	23.7	35.3	10.1	25.0	5.2	25.5	66.2	38.0
	2001	39.5	35.0	33.0	39.3	12.6	42.7	62.5	60.4
박사	1985	13.5	20.3	6.2	29.8	2.0	13.7	22.9	25.1
	1990	16.7	29.1	10.0	16.2	2.5	17.2	17.2	32.8
	2001	26.2	48.4	23.7	25.9	7.6	28.6	38.9	55.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해당년도), 『교육통계연보』

있다. 먼저 석사과정 이학계의 여학생 비율은 1985년 34.3%에서 2001년 39.3%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공학계의 여학생 비율은 1985년 2.0%에서 2001년 12.6%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박사과정 이학계의 여학생 비율은 1985년 29.8%에서 1990년까지 도리어 감소하여 22.1%였으나 2001년에는 25.9%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에 여학생의 공학계 비율은 1985년 2.0%였는데 2001년에도 7.6% 밖에 되지 않는다. 석사과정에 비해 박사과정 여학생의 공학계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여학생들이 고급 단계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분야에는 집중적인 유도과 양성 지원 정책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고학력 여성 인력의 양성이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양성되고 있고, 인적자원의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은 대학원과 같은 교육과정에 여성 참가 비율은 여전히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학력 여성 인력의 양성이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여성 대졸인력의 취업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등장한 인문학의 위기는 여성 취업의 위기라고까지 할 만하다. 고학력 여성 인력 양성 구조를, 현재의 교육 및 인문 관련 전문직과 같이 여성 집중 직종 중심에서 지식 기반 경제에서 수요로 하는 전문직으로 유연하게 전환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된다.

2. 저조한 여성 인력 활용의 지속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대졸 여성 인력의 저조한 활용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2001년 발표된 OECD 국가 비교 자료를 통하여 보면, OECD 가입 국가 평균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1.1%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54.7%에 그치고 있어 무려 26.4% 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다. 우리와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조차도 64.4%로써 우리와 거의 10% 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요인은 우선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할 당시 여성들의 철저한 취업준비도가 낮고, 기업의 여성 채용 기피 관행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취업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크다. 1980년대에 20% 포인트 차이가 난 신규 대졸자 남녀간의 취업을 격차는 1990년대 이후 많이 해소되었으며, 2001년에는 순수 취업률의 경우 5% 포인트 정도의 차이로까지 좁혀졌다. 이러한 남녀간 격차의 감소는 전체적인 취업률의 하락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이러한 취업률은 취업한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높은 이직과 이탈률을 보임으로써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여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이 직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취업 이행 과정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에서도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성과는 다른 문제를 가진 고학력 여성 인력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대학이나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까지는 노동부에서 여대생을 위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2년 정도 운영한 것이 전부이며, 대학의 경우 여대생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의 4년제 남녀공학 대학 중 여학생을 위한 지원부서나 기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은 7개에 불과하며, 여학생을 위한 진로 직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8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녀공학 대학에서 학교의 각종 서비스는 남녀 공히 동일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

회문화적인 특수한 현실이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대학의 여학생과 비교하여 볼 때 여자 대학의 여학생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남녀공학 대학의 여학생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기피현상은 가장 고급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들의 취업 시장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표 4>를 보면 1998~2000년 3년간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신규 취업률의 경우 남녀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주요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 및 그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중 배출된 박사는 3,919명이며 이 중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신규 취업자 중 3년간 여성 박사의 취업 현황은 평균적으로 남자 박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8년의 박사 학위자 중 기취업자를 제외한 학위 소지자 중 2000년 조사 시점까지의 신규 취업률은 남성은 67.8%, 여성은 37.7%이며, 1999년의 경우 남성 63.5% 여성 34%만이 취업하였다. 또한 2000년 학위자들 중 남성은 61%에 달하지만 여성은 26.7%에 그치고 있어 결국 성별간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의 취업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크다. 따라서 최근의 급속한 여성 박사 인력의 성장은 노동시장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인적 자본에 투자한 개인적·국가적 비용을 낭비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향후 과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 개입과 프로그램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

〈표 4〉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분야별 신규 취업률의 성별 차이

(단위 : %, 명)

		1998년도 졸업자	1999년도 졸업자	2000년도 졸업자
인문학 분야	여성	18.8	5.6	11.0
	남성	30.2	24.3	22.9
사회과학 분야	여성	50.0	31.8	36.8
	남성	61.3	63.1	67.4
이학 분야	여성	54.2	48.9	52.6
	남성	65.0	61.5	67.0
공학 분야	여성	66.7	71.4	33.7
	남성	83.8	83.5	72.5
의약학 분야	여성	79.5	88.4	95.7
	남성	90.8	97.7	97.4
사범계 분야 (교육학)	여성	29.2	38.9	15.8
	남성	55.6	43.9	13.2
전 체	여성	37.7(190)	34.0(187)	26.7(126)
	남성	67.8(1,376)	63.5(1,447)	61.0(593)

자료 : 진미석 외(2000), "여성고급인적자원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선 순위를 두어 집행되어야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양성된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개발지수는 더할 나위 없이 높으며, 그 질적 수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양성된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든지 가장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직장과의 양립 문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상 육아 문제가 여전히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는 한 양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우수한 여성 전문인력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퇴장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육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3~6세 아동에 대한 보육 시설은 상당히 확충된 실정이다. 그러나 출산휴가 이후 복직

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2001년 현재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0~2세 아동은 150,307명으로 전체 702,860명 중 약 20% 정도만을 보여주어 보육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아만을 전담하는 보육 시설은 전국에 74개에 불과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5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 인프라의 미비는 결국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나아가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한 일부 여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성 전체를 직업의식이 낮은 집단으로 간주하여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통계적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정책적 순위는 여성인력 양성의 구조를 노동시장의 향후 전망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외국의 경우, 여학생들의 편중된 진로를 개선하고 향후 지식 기반 경제로의 사회를 맞이하여 과학기술분야로의 여성 유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다각도

“

모순된 교육의 요소들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단계에서도 여전히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개인적·국가적 투자를 통하여
길러 놓은 여성 전문인력을 언제든지 사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육자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여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

의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특히 과학분야로의 여성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과학자들과 여학생들 간의 연계와 지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나 여학생에게 친밀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일정한 단계까지 양성된 연구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질적인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구미 및 유럽 각국의 노력 등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가 큰 점이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각종 여성 과학자 지원 정책이나 여성 과학자 내의 단체 구성을 통한 역량 강화 노력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향후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여성 인력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여성들이 또 다시 진로를 바꾸거나 재교육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 금전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과학계 중에서도 공학기술 분야에 여성의 비율이 극히 낮아 이쪽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학생들의 유인도 일정 수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러한 편중된 여성인력의 양성이 초래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진로 선택은 순전히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공식적인 진로 개발 기회는 열려 있었지만, 여전히 비공식적인 차별 관행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젠더규칙'이 존재하고,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내리는 노동시장에서의 피고용 가능성에 대한 비현실적이 아닌,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평가에 근거한 진로 선택이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해 왔음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여아들은 특히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사들의 태도에서부터 교과서의 내용, 진로지도, 나아가 여러 가지 과외활동에 이르기까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익숙하도록 이끌어지게 된다. 이것을 '여아 김빠기'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여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성적이 아니라고 규정되는 진로는 희망하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그런 진로를 택하는 여아의 경우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학분야 등 이공계열을 선택한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고용 가능성을 낮게 기대하며, 성차별적 교육 및 고용 관행을 인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이들이 석·박사 학위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누수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이 분야에서 학문 후속 세대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의 정책적 관심은 교육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에게 일관된 교육의 목

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인 정책적 아젠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최대의 모순은 기회의 평등이 달성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내밀하게 스며들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 교육의 모습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진로교육에 있어 남아의 성취는 매우 강조되나 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데, 이러한 것은 여아들이 직업 세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또 한다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깔린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여성에게 장차 주부가 될 여성이 담당해야 할 준비나 훈련, 감수성 등 전통적인 '여성성'에 적합한 강조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에게만 교육되는 '대안적 성취'의 개념이 하나의 주요한 교육 목적인 양 전달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 '대안적 성취'란 한 종류의 성취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대안적 성취란 직업적 성공에 대조되게, 결혼과 어머니가 됨을 뜻한다. 주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아들에게는 늘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성취는 여아에게 있어서는 늘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인 성격을 띠고 다가가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대안적인 성취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

러한 모순된 교육의 요소들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단계에서도 여전히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개인적·국가적 투자를 통하여 길러 놓은 여성 전문인력을 언제든 사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육자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여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과제는 여성 집단의 권리나 복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서는 결코 진전이 있기가 힘들다. 남성 집단은 이제 더 이상 활용의 여지가 없으며, 선진국 어디와 비교하여도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잠재력의 발현과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우선 순위로 두어야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무숙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육학 석사, Univ.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에서 교육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육분과 위원,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외국어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논저로는 『여성교육개론』(공저), 『한국의 대학교수의 남녀 불균형 현황과 개선 방안』, 『여대생의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Analysis of the policies for female teachers in Korea』, 『한국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성별 이슈의 위치와 과제』 등이 있다.